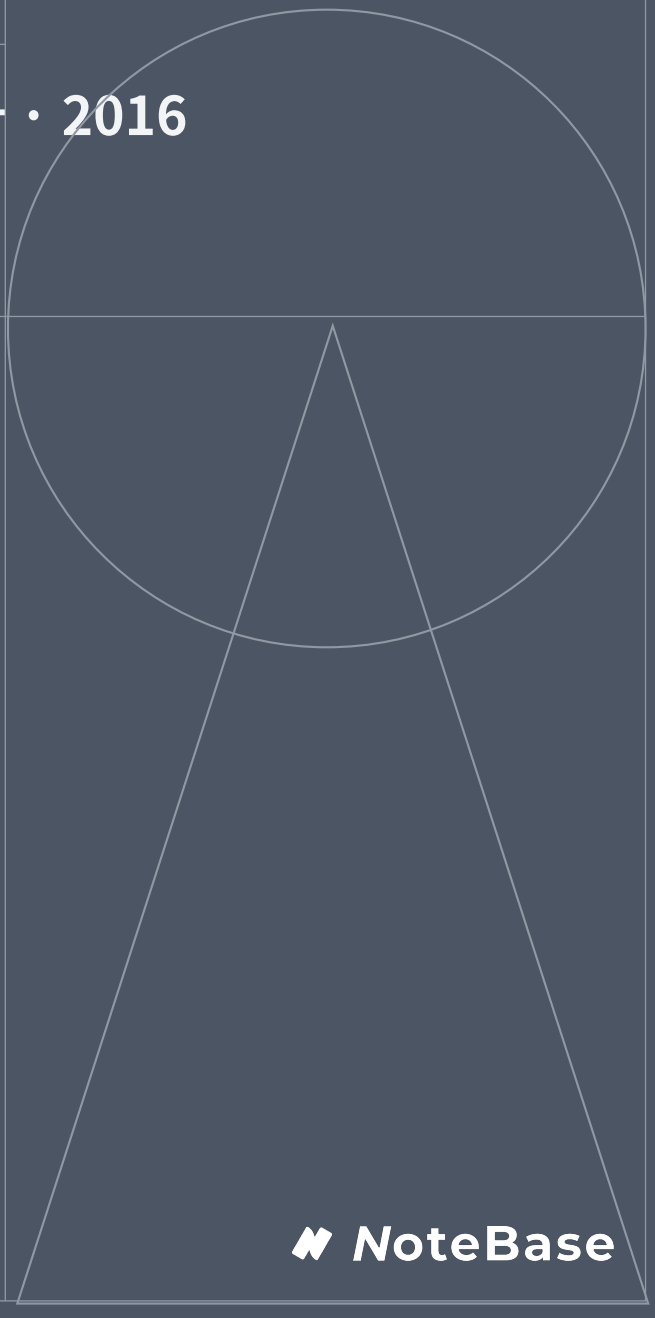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한국사 · 201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한국사 · 2016

공무원/국가직/7급 · 한국사 · 2016

문 1. 청동기시대의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교하고 날카로운 간돌검을 사용하였다.

② 빗살무늬토기에 도토리 등을 저장하였다.

③ 유적으로는 상원 검은모루, 공주 석장리 등이 있다.

④ 주먹도끼, 찍개 등 돌로 된 사냥 도구를 만들었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청동기 시대의 생활상을 신석기 시대와 구석기 시대의 유물·유적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청동기 시대: 청동기가 지배층 중심으로 쓰이고 일반 생활에서는 간석기인 간돌검, 반달 돌칼 등을 함께 사용하던 시대이다. 결정 차이축: 민무늬토기, 벼농사, 고인돌 / 키워드: 간돌검, 반달 돌칼, 고인돌
신석기 시대: 농경이 시작되고 빗살무늬토기와 갈돌·갈판을 사용하던 시대이다. 결정 차이축: 빗살무늬토기, 저장 생활 / 키워드: 빗살무늬토기, 가락바퀴, 움집
구석기 시대: 뗀석기를 사용하며 이동 생활을 하던 시대이다. 결정 차이축: 주먹도끼, 찍개, 대표 유적 / 키워드: 주먹도끼, 상원 검은모루, 공주 석장리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 무기와 함께 간석기도 널리 사용하였고, 간돌검은 그 대표적인 도구에 해당한다. 청동기가 귀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간석기가 계속 쓰였다는 점이 핵심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빗살무늬토기"이다. 빗살무늬토기에 도토리 등을 저장한 모습은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며, 청동기 시대에는 민무늬토기나 미송리식 토기를 사용하였다.

③ X
틀린 부분은 "상원 검은모루, 공주 석장리"이다. 상원 검은모루와 공주 석장리는 구석기 시대 유적이다. 청동기 시대에는 고인돌이 대표적이며, 부여 송국리 같은 취락 유적이 알려져 있다.

④ X
틀린 부분은 "주먹도끼, 찍개"이다. 주먹도끼와 찍개는 구석기 시대의 뗀석기이다. 청동기 시대에는 반달 돌칼, 간돌검 같은 간석기가 대표적이다.

오답 포인트

토기, 석기, 유적명을 시대별로 섞어 놓은 문제이다. ②는 식량 저장이라는 생활상 때문에 청동기로 착각하기 쉽지만 "빗살무늬토기"가 신석기를 확정하고, ③과 ④는 유적명과 석기 이름이 모두 구석기를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서 먼저 시대를 결정하는 표지를 찾으면 된다. 빗살무늬토기와 가락바퀴는 신석기, 주먹도끼와 석장리는 구석기, 간돌검과 반달 돌칼과 고인돌은 청동기이다.

암기 포인트

구석기=주먹도끼, 신석기=빗살무늬토기, 청동기=간돌검·고인돌이다.

NoteBase

문 2. 괄호 안에 들어갈 고려시대의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초에 ( )을(를) 설치하여 시중·평장사·참지정사·정당문학·지문하성사로 판사(判事)를 삼고, 판추밀 이하로 사(使)를 삼아 일이 있을 때 모였으므로 합좌(合坐)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그런데 한 해에 한 번 모이기도 하고 여러 해 동안 모이지 않기도 하였다. - 『역옹패설』 -

① 군사 기밀과 왕명 전달을 담당하였다.

② 화폐와 곡식의 출납, 회계의 일을 맡았다.

③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였다.

④ 양계의 축성 및 군사훈련 등 국방문제를 논의하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고려의 합좌기구인 도병마사의 성격과 다른 중앙 정치기구의 기능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도병마사는 재신과 추신이 함께 모인 합좌기구로, 양계의 축성·군사 훈련 등 국방 문제를 논의하였다.
중추원은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을 맡은 기구이다.
삼사는 화폐와 곡식의 출납, 회계를 맡은 기구이다.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는 기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군사 기밀과 왕명 전달을 담당한 기구는 중추원이다. 틀린 표현은 "군사 기밀과 왕명 전달"이며, 올바르게는 중추원이 맡았다고 고쳐야 한다.
② X: 화폐와 곡식의 출납, 회계를 맡은 기구는 삼사이다. 틀린 표현은 "화폐와 곡식의 출납, 회계"이며, 올바르게는 삼사의 기능이라고 고쳐야 한다.
③ X: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한 기구는 어사대이다. 틀린 표현은 "관리의 비리를 감찰"한 주체를 이 기구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어사대의 기능이라고 고쳐야 한다.
④ O: 제시문은 재신과 추신이 함께 모인 합좌기구를 설명하므로 도병마사에 해당한다. 도병마사는 양계의 축성, 군사 훈련 등 국방 문제를 논의하였으므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고려의 중앙 기구는 기능이 비슷해 보여 섞기 쉽다. 특히 군사라는 말만 보고 ①을 고르기 쉬우나, 중추원은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이고 도병마사는 재신·추신의 합좌기구라는 점이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에 재신과 추신이 함께 모였다는 합좌 표현이 보이면 먼저 도병마사를 떠올린다. 그다음 군사 기밀·왕명은 중추원, 회계는 삼사, 감찰은 어사대로 기능을 나누어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도병마사=합좌기구·국방, 중추원=군사 기밀·왕명, 삼사=회계, 어사대=감찰이다.

NoteBase

문 3. 조선시대의 법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국대전』 - 성종대 육전체제의 법전으로 완성하였다.
② 『대전회통』 - 법규교정소에서 만국공법에 기초하여 제정하였다.
③ 『대전통편』 - 18세기까지의 법령을 모아 원 · 속 · 증 표식으로 체계화하였다.
④ 『속대전』 - 영조가 직접 서문을 지어 간행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 시대 주요 법전의 편찬 시기와 성격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국대전』은 조선의 기본 통치 규범을 육전체제로 정비한 기본 법전이다.
『속대전』은 『경국대전』 이후의 법령을 보완한 법전이다.
『대전통편』은 영조·정조 대까지의 법령을 원·속·증·보로 나누어 체계화한 법전이다.
『대전회통』은 고종 대에 편찬된 조선 최후의 종합 법전으로, 기존 법전 체계를 정리·통합한 것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이 시작되어 성종 때 완성·시행된 조선의 기본 법전이다. 육전체제로 정비되었다는 설명이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법규교정소에서 만국공법에 기초하여 제정하였다"는 표현이다.
『대전회통』은 고종 때 편찬된 조선의 종합 법전이지, 갑오개혁기의 법규교정소가 만국공법에 기초하여 제정한 법전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대전회통』은 고종 대에 편찬된 조선 최후의 종합 법전이다"라고 고쳐야 한다.

③ O
『대전통편』은 18세기까지의 법령을 모아 원·속·증·보의 형식으로 정리한 법전이다. 기존 법전과 추가·보충 법령을 체계적으로 묶었다는 점에서 옳다.

④ O
『속대전』은 영조 대에 편찬된 법전이며, 영조가 서문을 지어 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조 대 법제 정비의 성격을 보여 주는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대전회통』과 갑오개혁기의 근대 법제 정비를 섞으면 틀리기 쉽다. ②는 법전 이름은 조선 후기 전통 법전인데, 설명 내용은 근대 개혁 기구와 국제법 수용을 붙여 놓은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선 시대 법전 문제는 먼저 기본 법전인지, 보완 법전인지, 종합 정리 법전인지를 구분한 뒤 편찬 왕대를 연결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근대 개혁 기구나 만국공법 같은 표현이 붙으면 전통 법전과의 시대 차이를 먼저 의심하게 된다.

암기 포인트

경국대전은 기본, 속대전은 보완, 대전통편은 통합 정리, 대전회통은 조선 최후의 종합 법전이다.

NoteBase

문 4.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운요호 사건으로 조선은 일본과 ㉠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고, 몇 달 후에는 부속으로 ㉡ 조·일수호조규 부록과 ㉢ 조·일무역규칙을 약정하였다.

① ㉠ - 개항장에서 일본화폐의 유통을 허용하였다.

② ㉡ - 일본국 항해자가 조선의 연해를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허가하였다.

③ ㉢ - 일본정부 소속의 선박에는 항세를 면제하였다.

④ ㉠, ㉡, ㉢ - 일본인 범죄자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허용하는 조항이 모두 들어 있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운요호 사건 이후 체결된 조일수호조규, 조일수호조규부록, 조일무역규칙의 내용을 서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 조일수호조규는 해안 측량 허용과 치외법권 인정이 핵심인 불평등 조약이다.
㉡ 조일수호조규부록은 개항장에서의 일본 화폐 통용, 부산에서의 간행이정 10리 등 일본의 경제적 침투를 구체화한 보충 규정이다.
㉢ 조일무역규칙은 양곡 수출입과 항세 문제 등 무역 절차를 정한 규칙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은 "㉠ - 개항장에서 일본화폐의 유통을 허용"이다.
- 일본 화폐의 통용을 허용한 것은 ㉡ 조일수호조규부록 제7관이다. ㉠ 조일수호조규의 대표 내용은 해안 측량 허용과 치외법권 인정이다.

② X
- 틀린 부분은 "㉡ - 일본국 항해자가 조선의 연해를 자유롭게 측량"이다.
- 조선 연해를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한 것은 ㉠ 조일수호조규 제7관이다. ㉡ 조일수호조규부록은 측량선이 곤란을 당했을 때 편의를 주는 보충 규정 등을 두었다.

③ O
- ㉢ 조일무역규칙 제7칙은 일본국 정부 소속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일본 정부 소속 선박의 항세 면제라는 설명은 옳다.

④ X
- 틀린 부분은 "㉠, ㉡, ㉢에 일본인 범죄자에 대한 영사재판을 허용하는 조항이 모두 들어 있다"이다.
- 영사재판권은 ㉠ 조일수호조규의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으로 정리한다. ㉡은 일본 화폐 통용과 거류 범위 같은 보충 규정이고, ㉢은 무역 절차와 항세를 다룬 규칙이므로 세 문서 모두의 공통 조항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포인트

조일수호조규 본문과 그 뒤에 체결된 부록·무역규칙의 내용을 한 덩어리로 외우면 ①과 ②처럼 조항의 소속을 뒤바꾸기 쉽다. 특히 일본 화폐 통용은 ㉡, 해안 측량 허용은 ㉠이라는 구분이 자주 함정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강화도 조약 체제 문제는 먼저 ㉠ 본조약인지, ㉡ 부록인지, ㉢ 무역규칙인지부터 구분한다. 해안 측량·치외법권이면 ㉠, 일본 화폐 통용이면 ㉡, 양곡 유출·항세 문제이면 ㉢으로 연결하면 빠르게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조수조는 측량·치외법권, 수호조규부록은 화폐 통용, 무역규칙은 양곡·항세이다.

NoteBase

문 5. 시기별 대외 교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조선 - 위만정권은 진국과 한 사이의 교역을 중계하였다.

② 통일신라 - 교통로인 신라도를 통하여 당과 직접 교역하였다.

③ 고려 - 송에 종이와 인삼을 수출하고 서적과 약재를 수입하였다.

④ 조선 - 류큐 및 동남아시아에서 물소뿔, 침향을 들여왔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조선, 통일 신라, 고려, 조선의 대외 교역 상대와 교통로·교역 품목을 시대별로 정확히 연결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위만 조선은 한과 진국 사이의 중계 무역을 통제하며 성장한 정권이다.
통일 신라는 당과 해상 교역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당에는 신라방·신라소·신라원이 형성되었다.
고려는 송과 활발히 교역하며 종이·인삼 등을 수출하고 서적·약재 등을 수입하였다.
조선은 류큐 및 동남아시아와의 교역에서 물소뿔·침향 같은 남방 물산을 들여왔다.
신라도는 통일 신라의 대당 교역로가 아니라 발해의 5도 가운데 신라로 통하는 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위만 정권은 한과 진국 사이의 교역을 중계하며 이익을 얻었다. 위만 조선의 성장 배경으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신라도를 통하여 당과 직접 교역하였다'이다. 신라도는 통일 신라의 교통로가 아니라 발해의 5도 중 하나로, 발해와 신라를 연결한 길이다. 통일 신라는 당과 직접 교역하기는 하였지만 그 교통로를 신라도라고 부르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통일 신라는 당과 해상 교역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당에 신라방·신라소·신라원이 형성되었다'이다.

③ O
고려는 송에 종이와 인삼 등을 수출하였고, 송으로부터 서적과 약재 등을 수입하였다. 고려의 대송 무역은 선진 문물 수용과 연결되어 자주 묶여 출제된다.

④ O
조선은 류큐 및 동남아시아와 교류하면서 물소뿔, 침향 등 남방 물산을 수입하였다. 류큐와의 교역 품목으로 자주 제시되는 내용이다.

오답 포인트

2번의 함정은 '신라도'라는 명칭이다. 이름만 보고 통일 신라의 대당 교역로로 오해하기 쉽지만, 신라도는 발해의 교통로이다. 통일 신라의 대외 교역은 장보고의 청해진, 당의 신라방·신라소·신라원과 연결해서 기억하는 편이 정확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기별 대외 교역 문제는 시대와 상대국, 대표 교통로, 대표 품목을 한 묶음으로 판단하면 된다. 특히 고유 명칭이 붙은 교통로가 보이면 어느 나라의 체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신라도가 보이면 발해의 5도를 떠올리면 된다.

암기 포인트

위만 조선은 중계 무역, 통일 신라는 해상 교역, 고려는 송 교역, 조선은 류큐·동남아시아 남방 물산 수입으로 정리된다. 신라도는 발해의 길이다.

NoteBase

문 6. (가)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평서대원수는 급히 격문을 띄우노니 관서의 부로자제와 공·사천민은 모두 이 격문을 들으라. ... (중략) ... 조정에서 관서를 버림이 분토와 다름없다. 심지어 권세가의 노비도 서도의 사람을 보면 반드시 '평한(平漢)'이라고 말한다.
(나)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은 우병사 백낙신이 탐욕을 부려 침학하였기 때문입니다. 환포와 도결 6만 냥을 가호(家戶)에 배정하여 백징(白徵)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봉기했던 것입니다.

① 정약용이 유배 중 목민심서를 저술하였다.
②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③ 이승훈이 사행 중 천주교 세례를 받고 돌아왔다.
④ 양헌수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가) 홍경래의 난과 (나) 진주 민란을 기준으로 조선 후기 사건의 선후를 연도 감각으로 판단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784 이승훈의 천주교 세례와 귀국 -> 1811 홍경래의 난 -> 1818 정약용의 목민심서 저술 -> 1862 진주 민란을 비롯한 임술 농민 봉기 -> 1865 경복궁 중건 시작 -> 1866 병인양요 때 양헌수의 정족산성 승리
왜 이 순서인가: (가)는 1811년, (나)는 1862년이므로 그 사이에 들어가는 사건만 고르면 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정약용은 강진 유배 중인 1818년에 목민심서를 저술하였다. 이는 1811년 홍경래의 난 이후이면서 1862년 진주 민란 이전이므로 두 사건 사이의 사실에 해당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이 사건을 두 사건 사이의 사실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은 임술 농민 봉기 이후인 1865년부터 추진된 사실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이 사건이 두 사건 사이에 있었다고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이승훈이 사행 중 천주교 세례를 받고 돌아온 일은 1784년으로, 홍경래의 난보다도 이전의 사실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이 사건을 두 사건 사이의 사실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양헌수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한 일은 병인양요가 일어난 1866년으로, 진주 민란 이후의 사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1862년을 기준으로 앞뒤를 가르는 문제가 핵심인데, 흥선대원군 집권기 사건인 경복궁 중건과 병인양요를 같은 조선 후기 사건으로만 묶어 두면 1862년 이후 사건을 쉽게 끌려가게 된다. 반대로 이승훈의 천주교 수용은 너무 이른 시기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가), (나) 자료가 가리키는 사건과 연도를 확정한 뒤, 각 선지를 그보다 이전인지 사이인지 이후인지로만 나누어 판단하면 된다. 이 문항에서는 1811년과 1862년 사이에 들어가는 사건만 남기면 된다.

암기 포인트

홍경래의 난 1811 -> 목민심서 1818 -> 진주 민란 1862 -> 경복궁 중건 1865 -> 병인양요 1866의 흐름으로 묶어 둔다.

NoteBase

문 7. 밑줄 친 '대왕'이 재위하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우리 왕후께서는 좌평 사택적덕의 따님으로 … (중략) … 기해년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맞이하셨다. 원하오니, 우리 대왕의 수명을 산악과 같이 견고하게 하시고 치세는 천지와 함께 영구하게 하소서."

① 사비의 왕흥사가 낙성되었다.

② 22담로에 왕족을 보냈다.

③ 박사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였다.

④ 노리사치계가 왜에 불상과 불경을 전하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미륵사지 석탑 사리봉안기의 내용을 단서로 백제 무왕의 재위 시기를 파악하고, 같은 시기의 사실을 고르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좌평 사택적덕의 따님'과 사리 봉안 내용을 보고 미륵사지 석탑 사리봉안기임을 확인한다.
2. 이 사료의 '대왕'을 백제 무왕으로 판단한다.
3. 각 선지를 무왕 대 사건인지, 다른 왕 대 사건인지 비교한다.

핵심 근거

사료의 왕후가 좌평 사택적덕의 딸이며 사리를 봉안하였다는 내용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봉안기를 가리킨다. 이는 백제 무왕 대의 자료이므로 밑줄 친 '대왕'은 무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왕흥사는 법왕 때 창건되어 무왕 때 완성된 사비의 절이다. 따라서 무왕이 재위하던 시기의 사실로 옳다.
② X: 틀린 표현은 '22담로'이다. 왕족을 22담로에 파견한 것은 지방 통치를 강화한 무령왕 때의 사실이지 무왕 때의 일이 아니다.
③ X: 틀린 표현은 '박사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였다'는 사건의 시기이다. 고흥의 『서기』 편찬은 근초고왕 때의 일로, 무왕 대보다 훨씬 이르다.
④ X: 틀린 표현은 '노리사치계가 왜에 불상과 불경을 전하였다'는 사건의 시기이다. 이것은 성왕 때 왜에 불교를 전한 사실로, 무왕 대의 일이 아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백제의 주요 문화사와 대외 관계를 한 시기로 뭉뚱그려 외우면 틀리기 쉽다. 특히 ②의 무령왕, ④의 성왕처럼 백제 중흥기의 왕들을 무왕과 혼동하는 함정을 노린 문항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료에서 인물과 유물의 단서를 먼저 잡아 왕을 특정한 뒤, 각 선지를 그 왕의 전후 왕대 사건과 구분하여 판단한다. 백제사는 무령왕-성왕-법왕·무왕의 흐름으로 묶어 보면 시기 판별이 쉬워진다.

암기 포인트

미륵사지 석탑 사리봉안기=무왕, 22담로=무령왕, 왜에 불교 전래=성왕, 『서기』=근초고왕이다.

NoteBase

문 8. 고려시대의 조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계에서는 조세를 현지 경비로 사용하였다.

② 조창에서 개경까지의 운반은 조창민이 담당하였다.

③ 조운량이 증가하자 주교사 소속의 배를 이용하였다.

④ 조운 기간은 일반적으로 2월부터 5월이었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의 조운 운영 방식과 조선 후기의 별도 관청인 주교사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려의 조운은 지방의 세곡을 조창에 모아 개경의 경창으로 운송하는 제도이다.
양계는 국방상 특수 지역이어서 조세를 중앙으로 보내기보다 현지 군수와 방수 경비에 충당하였다.
주교사는 고려 제도가 아니라 조선 후기 정조 때 설치된 관청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양계는 국경 방어를 담당한 특수 지역이어서 조세를 현지 경비에 충당하였다.
② O. 조창에서 개경까지의 운송 실무는 조창 지역 주민인 조창민이 맡았으며, 실제 운항에는 초공과 수수 등이 종사하였다.
③ X. 틀린 부분은 '주교사 소속의 배'이다. 주교사는 조선 후기 정조 때 설치된 관청이므로 고려 시대 조운 설명에 넣을 수 없다. 올바르게는 고려는 각 조창에 배정된 조운선으로 세곡을 개경까지 운송하였다.
④ O. 고려의 조운은 보통 이듬해 2월에 시작하여 가까운 지역은 4월까지, 먼 지역은 5월까지 마쳤으므로 일반적으로 2월부터 5월이라는 설명이 맞다.

오답 포인트

조운과 배라는 단어만 보고 주교사를 같은 제도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주교사는 정조 때의 조선 후기 관청이므로 고려 조운과는 시대가 맞지 않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려 조운 문제는 먼저 시대를 본 뒤 양계의 예외적 운영, 조창민의 운송 담당, 조운 시기 2월부터 5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선지에 조선 후기 기관명이 나오면 시대 불일치를 먼저 의심할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고려 조운은 조창에서 경창으로, 양계 조세는 현지 경비로, 주교사는 정조 때이다.

NoteBase

문 9. (가)와 (나)를 주장한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가) 서양 종교는 사교이므로 마땅히 음탕한 음악이나 미색처럼 여겨서 멀리해야겠지만, 서양 기계는 이로워서 진실로 백성의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나) 오늘날 급선무는 인재를 등용하며 국가 재정을 절약하고 사치를 억제하며, 문호를 개방하고 이웃나라와 친선을 도모하는 데 있다. ...(중략)... 일본은 법을 변경한 이후로 모든 것을 바꾸었다[更張]고 한다.

① (가) - 개벽 사상을 담은 동학을 창도하였다.
② (가) -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청국 군대의 개입을 요청하였다.
③ (나) - 만동묘 철폐를 주도하였다.
④ (나) - 보부상단을 통괄하는 혜상공국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동도서기론을 주장한 온건 개화파 김윤식과 변법자강을 주장한 급진 개화파 김옥균의 노선과 활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김윤식: 동도서기론을 바탕으로 유교 질서는 지키고 서양의 기술과 기계는 받아들이려 한 온건 개화파 인물이다.
김옥균: 변법자강을 내세워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 정치·사회 제도까지 급격히 개혁하려 한 급진 개화파 인물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동학을 창도하고 개벽 사상을 내세운 인물은 최제우이다. (가)는 김윤식 계열의 온건 개화파이므로 연결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동학을 창도하였다"이고, 올바르게는 "동도서기론을 바탕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이다.

② O
(가)의 김윤식은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김홍집 등과 함께 위안스카이에게 청군 출동을 요청하여 정변 진압에 협력하였다.

③ X
만동묘 철폐를 주도한 인물은 흥선대원군이다. (나)의 김옥균과는 관련이 없다. 틀린 표현은 "만동묘 철폐를 주도하였다"이고, 올바르게는 "김옥균은 갑신정변을 주도하며 급진 개혁을 추진하였다"이다.

④ X
혜상공국은 1883년 고종 정부가 보부상을 통괄하려고 설치한 기구이다. 김옥균 등 갑신정변 세력은 이를 설치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폐지를 주장하였다. 틀린 표현은 "설치를 주장하였다"이고, 올바르게는 "혜상공국의 폐지를 주장하였다"이다.

오답 포인트

(가)와 (나)는 모두 개화와 문호 개방을 말해 비슷해 보이지만 방향이 다르다. (가)는 유교 질서를 유지하면서 서양 기술만 수용하는 온건 노선이고, (나)는 일본의 경장을 본떠 제도 개혁까지 추진하는 급진 노선이다. ④는 혜상공국이라는 낯선 기관명을 이용해 개화 일반과 급진 개화파를 섞어 놓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양 종교는 배척하고 서양 기계는 수용한다는 문구가 보이면 동도서기론의 온건 개화파로 판단한다. 인재 등용, 문호 개방, 경장, 일본식 개혁이 함께 나오면 김옥균 계열의 급진 개화파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김윤식=동도서기·온건 개화, 김옥균=변법자강·갑신정변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선언문을 발표한 회담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동맹국은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탈취하거나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할 것과 만주, 팽호도와 같이 일본이 청국에게서 빼앗은 지역을 모두 중화민국에 반환할 것을 목표로 한다. …(중략)… 그리고 우리 세 나라는 현재 한국 국민이 노예 상태하에 있음을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주·독립국가로 할 결의를 가지고 있다.

① 회담 당사국은 미국, 영국, 소련이었다.

② 4개국에 의한 최장 5개년의 한반도 신탁통치를 결정하였다.

③ 회담의 영향으로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④ 제2차 세계대전 중 최초로 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하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카이로 선언을 발표한 카이로 회담을 파악하고, 이를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나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카이로 회담은 1943년에 미국, 영국, 중화민국이 모여 대일 전후 처리 원칙을 논의한 회담이다.
카이로 선언은 일본이 빼앗은 중국 영토의 반환과 함께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 만든다고 밝혔다.
한반도 신탁 통치안은 1945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논의되었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건국 강령은 1941년에 이미 발표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소련"이다.
카이로 회담의 당사국은 미국, 영국, 중화민국이었으며 소련은 참가하지 않았다.

② X
틀린 부분은 "4개국에 의한 최장 5개년의 한반도 신탁통치"이다.
이는 카이로 회담이 아니라 1945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회담의 영향으로"이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카이로 회담 이전인 1941년에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으므로, 이 회담의 영향으로 건국 강령이 나온 것은 아니다.

④ O
카이로 선언은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국가로 할 결의"를 명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이 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처음 약속한 선언이라는 점에서 옳다.

오답 포인트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를 한 묶음으로 외우면 ①과 ②에 흔들리기 쉽다. 특히 한국 독립 약속은 카이로 선언, 신탁 통치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라는 구분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료에 만주·팽호도 반환, 일본의 태평양 도서 박탈, 한국의 자유·독립이 함께 나오면 카이로 선언으로 판단한다. 그다음 참가국은 미국·영국·중화민국, 신탁 통치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로 나누어 보면 된다.

암기 포인트

카이로 선언은 한국 독립 약속,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는 신탁 통치안이다.

NoteBase

문 11. 1930년 이후 전개된 해외 독립운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홍진, 이청천 등이 만주에서 한국독립당을 발족하였다.

② 임시정부가 국무위원 중심제를 채택하고자 개헌하였다.

③ 조선혁명군이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④ 태항산 지역에서 조선의용군이 팔로군과 협동작전을 벌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1930년 이후 해외 독립운동 단체와 전투, 활동 시기를 정확히 연결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한국독립당은 1930년 만주에서 홍진, 이청천 등이 조직한 민족주의 계열 독립운동 정당이다.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 이끈 무장 독립군으로 영릉가 전투 등에서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에 맞섰다.
조선의용군은 화북으로 이동한 조선의용대 일부가 편성한 부대로 태항산 일대에서 팔로군과 협동작전을 전개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중심제 개헌은 1927년의 일이고, 1940년에는 주석 중심제로 정비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만주의 한국독립당은 1930년 홍진, 이청천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단체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국무위원 중심제를 채택하고자'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중심 집단지도체제 개헌은 1927년에 이루어졌으므로 1930년 이후의 해외 독립운동으로 볼 수 없다. 올바르게는 '임시정부는 1927년에 국무위원 중심제로 개헌하였고, 1940년에는 주석 중심제로 개편되었다'이다.

③ O
조선혁명군은 1932년 영릉가 전투에서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을 격퇴하였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④ O
조선의용군은 화북 태항산 지역에서 팔로군과 함께 대일 항전을 전개하였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임시정부의 여러 차례 개헌을 한 시기로 묶어 외우면 ②처럼 1927년의 국무위원 중심제를 1930년 이후 활동으로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은 단체 이름보다 먼저 시기를 걸러 내는지가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해외 독립운동 문항은 먼저 연도를 기준으로 걸러 내고, 그다음 단체와 전투·활동 지역을 연결하면 된다.
1930년대 만주의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군, 1940년대 화북의 조선의용군처럼 시기와 활동 무대를 함께 묶어 판단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1927년 국무위원 중심제, 1930년 만주 한국독립당, 1932년 영릉가 전투, 태항산은 조선의용군과 연결된다고 정리해 두면 된다.

NoteBase

문 12. 밑줄 친 '농서'가 편찬된 왕대의 경제생활로 옳은 것은?

각 지역의 풍토가 달라 곡식을 심고 가꾸는 법이 옛글과 다 같을 수 없습니다. 이에 여러 도의 감사들이 주현의 늙은 농부를 방문하여 실제 농사경험을 들었습니다. 저희 정초 등은 이를 참고하여 농서를 편찬하였습니다.

① 칠패 시장에서 어물을 판매하였다.
② 녹비법을 활용하여 지력을 회복하였다.
③ 고구마·감자를 구황작물로 활용하였다.
④ 시전에서 남초를 거래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세종 때 편찬된 『농사직설』을 단서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경제생활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농사직설』은 세종 때 정초 등이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해 편찬한 농서이다.
세종 대의 경제생활은 농업 기술 정리와 권농 정책이 핵심이고, 칠패 시장의 성장, 고구마·감자의 보급, 남초 거래는 주로 조선 후기 현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칠패 시장의 성장과 어물 판매 증가는 조선 후기 상업 발달의 모습이다.
틀린 표현은 "칠패 시장"이다. 올바르게는 세종 대에는 시장 성장보다 농서 편찬과 농업 장려가 더 핵심적인 경제 모습이다.

② O
녹비법은 풋거름을 이용해 지력을 높이는 농법으로, 조선 전기 농업 기술의 하나이다.
『농사직설』이 편찬된 세종 대의 경제생활로 볼 수 있다.

③ X
고구마와 감자는 모두 조선 후기에 들어와 구황작물로 활용되었다.
틀린 표현은 "고구마·감자를 구황작물로 활용"한 시기이다. 올바르게는 이는 세종 대가 아니라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

④ X
남초는 담배를 뜻하며 임진왜란 이후 전래되어 보급되었다.
틀린 표현은 "남초"이다. 올바르게는 남초 거래는 세종 대가 아니라 담배가 들어온 이후의 조선 후기 경제생활이다.

오답 포인트

제시문에서 중요한 단서는 『농사직설』, 정초,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이다. 이 단서를 놓치면 조선 시대 전반의 경제생활을 한꺼번에 떠올려 조선 후기의 시장 발달, 담배, 구황작물을 세종 대와 섞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농서명과 편찬 인물이 보이면 먼저 왕대와 시기를 확정한 뒤, 선지에 나온 시장·작물·상품이 그 시대에 실제로 존재했는지로 판단하면 된다. 세종과 『농사직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조선 전기 농업 정책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농사직설』=세종·정초·조선 전기 농업, 고구마·감자·남초·칠패=조선 후기이다.

NoteBase

문 13. 우금치 전투가 진행된 당시에 동학농민군이 알 수 있었던 사실로 적절한 것은?

① 정부가 개국기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② 건양이라는 연호가 제정되었다.

③ 고종이 홍범 14조를 발표하였다.

④ 지방제도가 23부 337군으로 개편되었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우금치 전투가 벌어진 1894년 11월을 기준으로 갑오개혁·을미개혁 관련 조치의 선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우금치 전투는 동학 농민 운동 2차 봉기 단계인 1894년 11월 공주 우금치에서 벌어진 전투이다.
1894년에는 1차 갑오개혁으로 개국기년 사용이 추진되었다.
1895년에는 홍범 14조 반포와 23부 337군 지방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다.
건양 연호는 1896년부터 사용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개국기년 사용은 1894년 군국기무처가 결정한 갑오개혁 조치이다.
우금치 전투도 1894년 11월의 사건이므로 당시 동학농민군이 알 수 있었던 사실에 해당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건양이라는 연호가 제정되었다"이다.
건양 연호는 1896년부터 사용되었다.
우금치 전투 시점보다 뒤의 사실이므로 당시에는 알 수 없었다.

③ X
틀린 부분은 "고종이 홍범 14조를 발표하였다"이다.
홍범 14조는 1895년 1월에 반포되었다.
우금치 전투는 1894년 11월 전투이므로 시기가 맞지 않는다.

④ X
틀린 부분은 "지방제도가 23부 337군으로 개편되었다"이다.
23부 337군 개편은 1895년 6월의 지방제도 개혁이다.
우금치 전투 당시의 사실로 볼 수 없다.

오답 포인트

1894년 갑오개혁, 1895년 홍범 14조·23부제, 1896년 건양 연호를 한 덩어리로 외우면 시기 선후가 뒤섞인다.
이 문항은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시점인 1894년 11월보다 앞선 조치만 고르는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동학농민운동 관련 시기 문제는 먼저 사건 연도를 1894년으로 고정한 뒤 선지를 1894년 조치와 1895년 이후 조치로 나누어 판단한다. 갑오개혁 1차 조치인지, 을미개혁 이후 조치인지가 분기점이 된다.

암기 포인트

우금치 1894년, 개국기년 1894년, 홍범 14조·23부제 1895년, 건양 1896년이다.

NoteBase

문 14. 괄호 안에 들어갈 국가의 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이 ( )에 국서를 보냈다. “삼가 고려국왕에게 문안인사를 드립니다. ...(중략)... 보내신 글을 보니 날짜 아래 관품과 이름을 쓰지 않았고 글의 말미에는 천손(天孫)이라는 칭호를 써 놓았습니다.”『속일본기』

① 북성·중성 등 4개의 성곽으로 이루어졌다.

② 연못, 인공섬을 갖춘 월지를 동궁으로 사용하였다.

③ 나성 및 궁궐 후원에 해당하는 부소산이 있었다.

④ 직사각형의 내·외성, 주작대로를 만들었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속일본기』 사료에 보이는 '고려국왕', '천손' 표현을 근거로 괄호 안의 국가를 발해로 파악하고, 발해 도읍 상경 용천부의 특징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사료의 주체가 일본임을 확인한다.
2. 상대 국가가 스스로를 '고려'라 부르고 왕이 '천손' 칭호를 사용한 점을 본다.
3. 이를 발해로 판단한 뒤 발해의 도성 구조와 연결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발해의 상경 용천부를 설명한 내용이 아니다. '북성·중성 등 4개의 성곽'이라는 표현이 틀렸고, 발해 상경성은 당의 장안성을 본뜬 직사각형 도성으로 외성·궁성·황성의 구조가 특징이다.
② X: 연못과 인공섬을 갖춘 월지를 동궁으로 사용한 것은 통일 신라의 금성에 해당한다. '월지'가 틀린 표현이며, 발해 도읍의 대표 시설로 볼 수 없다.
③ X: 나성과 궁궐 후원에 해당하는 부소산은 백제 사비 도성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부소산'이 틀린 표현이며, 발해 도읍과 연결되지 않는다.
④ O: 발해는 상경 용천부를 비롯한 도성에서 직사각형의 내·외성 구조와 주작대로를 두어 당의 도성 제도를 수용한 모습을 보였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사료에서 국가를 맞힌 뒤에도 각 선지의 도읍 특징을 다른 나라와 섞으면 틀리기 쉽다. ②의 월지는 통일 신라, ③의 부소산은 백제 사비, ①의 4성 표현은 발해 상경성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일본 사료에 보이는 '고려국왕', '천손'은 발해를 가리키는 단서로 본다. 이후 선지에서는 발해의 도성 특징인 상경 용천부, 직사각형 도성, 주작대로를 우선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발해는 '고려'를 칭하고, 상경 용천부는 당 장안성을 본뜬 직사각형 도성과 주작대로가 핵심이다.

NoteBase

문 15. 조선전기의 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오위도총부가 군무를 총괄하였다.

② 지방의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진관을 편제하였다.

③ 잡색군은 생업에 종사하다가 일정 기간 군사훈련을 받았다.

④ 금위영을 설치하여 도성을 수비하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 전기 군사 제도의 핵심 요소인 5위 체제, 진관 체제, 잡색군과 조선 후기 5군영 체제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선 전기 군제는 중앙의 5위와 지방의 진관 체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오위도총부는 오위를 총괄하는 최고 군령기관이다.
잡색군은 정규군 외에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동원되는 예비 병력이다.
금위영은 조선 후기 숙종 때 설치된 5군영의 하나로, 조선 전기 군제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오위도총부는 조선 전기 오위를 총괄하던 최고 군령기관이므로 군무를 통괄하였다는 설명은 옳다.
② O: 진관 체제는 지방의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 방어망을 짜는 제도이므로 설명이 옳다.
③ O: 잡색군은 정규군 외의 예비 병력으로,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필요할 때 동원되고 군사 훈련도 받는 성격의 군대였으므로 설명이 옳다.
④ X: '금위영'이 틀린 표현이다. 금위영은 조선 후기 숙종 때 설치된 5군영의 하나로 도성 수비를 맡았다. 조선 전기에는 5위와 진관 체제가 중심이었다.

오답 포인트

조선 전기 군제와 조선 후기 군영 체제를 시기 구분 없이 섞으면 틀리기 쉽다. 금위영, 어영청, 수어청 같은 5군영은 임진왜란 이후에 정비된 조선 후기 체제라는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5위, 진관, 잡색군이 나오면 조선 전기를 먼저 떠올리고, 훈련도감·어영청·금위영·5군영이 나오면 조선 후기로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조선 전기는 5위·진관·잡색군, 조선 후기는 훈련도감과 5군영 체제이다.

NoteBase

문 16.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신문왕 7년 5월에 문무 (㉠)을 지급하되, 차등을 두었다.
○ 신문왕 9년 1월에 내·외관의 (㉡)을 혁파하고 매년 조(租)를 내리되, 차등이 있게 하였다.
○ 성덕왕 21년 8월에 처음으로 백성에게 (㉢)을 지급하였다.

① ㉠: 관료전, ㉡: 식읍, ㉢: 민전
② ㉠: 관료전, ㉡: 녹읍, ㉢: 정전
③ ㉠: 공음전, ㉡: 식읍, ㉢: 정전
④ ㉠: 공음전, ㉡: 녹읍, ㉢: 민전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통일 신라의 토지 제도인 관료전·녹읍·정전과 고려의 공음전, 그리고 식읍·민전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관료전은 신문왕 때 관료에게 직역의 대가로 지급한 토지이다.
녹읍은 관료에게 조세와 노동력 징수까지 허용한 경제 기반이다.
정전은 성덕왕 때 백성에게 처음 지급한 토지이다.
공음전은 고려에서 5품 이상 관리에게 세습을 허용한 토지이므로 통일 신라 제도와 구분된다.
식읍은 수조권뿐 아니라 노동력 지배까지 수반한 봉토이고, 민전은 백성의 사적 경작지라는 뜻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맞지만 ㄴ, ㄷ이 틀렸다. 신문왕 9년 1월에 혁파된 것은 식읍이 아니라 녹읍이다. 성덕왕 21년 8월에 백성에게 지급한 것도 민전이 아니라 정전이다. 따라서 ①의 틀린 표현은 "식읍", "민전"이고, 올바르게는 "녹읍", "정전"이다.

② O
신문왕 7년 5월에는 관료전을 지급하되 차등을 두었고, 신문왕 9년 1월에는 내·외관의 녹읍을 혁파한 뒤 해마다 조를 지급하였다. 또 성덕왕 21년 8월에는 백성에게 처음으로 정전을 지급하였다. 세 빈칸이 모두 맞다.

③ X
ㄷ은 맞지만 ㄱ, ㄴ이 틀렸다. 신문왕 7년 5월에 지급한 것은 고려의 공음전이 아니라 통일 신라의 관료전이다. 또 신문왕 9년 1월에 혁파된 것은 식읍이 아니라 녹읍이다. 따라서 ③은 "공음전"을 "관료전"으로, "식읍"을 "녹읍"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ㄴ은 맞지만 ㄱ, ㄷ이 틀렸다. 공음전은 고려의 제도이므로 신문왕 대의 조치와 연결할 수 없다. 성덕왕 21년 8월에 지급한 것도 민전이 아니라 정전이다. 따라서 ④는 "공음전"을 "관료전"으로, "민전"을 "정전"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공음전과 관료전은 모두 관리에게 준 토지라는 점 때문에 자주 섞이지만, 공음전은 고려의 세습 토지이고 관료전은 통일 신라의 지급 토지라는 시대 차이가 핵심이다. 또 식읍과 녹읍도 모두 경제 기반이라는 점 때문에 헷갈리지만, 신문왕이 혁파한 대상은 녹읍이라는 점을 정확히 잡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시대를 나눈다. 통일 신라의 신문왕·성덕왕이 나오면 관료전, 녹읍, 정전을 먼저 떠올리고, 고려가 나오면 공음전을 연결한다. 그다음 빈칸마다 "관리 대상 토지인가", "백성에게 준 토지인가", "세습 제도인가"를 따져 보면 오답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신문왕은 관료전 지급, 녹읍 혁파이고 성덕왕은 정전 지급이다. 공음전은 고려 제도이다.

NoteBase

문 17. ㄱ과 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포를 기둥 위에만 배치하는 (ㄱ) 양식은 고려시대의 일반적 건축양식이었다. 공포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배치하는 (ㄴ) 양식 건물은 고려후기에 등장하지만 조선시대에 널리 유행하였다.

① ㄱ - 부석사 무량수전은 간결한 맞배지붕 형태이다.

② ㄱ - 팔작지붕인 봉정사 극락전은 장엄하고 화려하다.

③ ㄴ - 수덕사 대웅전은 백제계 사찰의 전통을 이었다.

④ ㄴ - 맞배지붕의 성불사 응진전이 이에 해당한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포를 기둥 위에만 두는 주심포와 기둥 사이에도 두는 다포의 차이, 그리고 대표 건물의 지붕 형식까지 함께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심포: 공포를 기둥 위에만 두는 양식으로 고려시대에 널리 쓰였으며 전체 구성이 비교적 간결한 편이다.
다포: 공포를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도 두는 양식으로 고려 후기에 등장하여 조선시대에 크게 유행하였고 장식성이 강한 편이다.
구분 기준: 공포의 위치와 건물의 장식성, 그리고 대표 건물의 지붕 형식을 함께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부석사 무량수전은 ㉠인 주심포계 건물이 맞지만, 틀린 부분은 "맞배지붕"이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계의 대표 건물이면서 팔작지붕 건물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팔작지붕인 봉정사 극락전"과 "장엄하고 화려하다"이다.
봉정사 극락전은 ㉠인 주심포계 맞배지붕 건물이며, 다포계처럼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비교적 간결한 계통에 속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에 수덕사 대웅전을 넣은 점이다.
수덕사 대웅전은 고려시대 주심포계 건물로 보아야 하므로 올바르게는 ㉠의 사례이다.

④ O
성불사 응진전은 맞배지붕이지만 공포를 기둥 사이에도 둔 다포계 건물로, ㉡의 사례에 해당한다.
고려 후기에 등장한 다포 양식이 조선시대에 널리 퍼지는 흐름과도 연결된다.

오답 포인트

①은 부석사 무량수전이 주심포라는 사실만 기억하고 지붕 형식을 대충 맞배지붕으로 바꾸면 틀리기 쉽다. ②는 봉정사 극락전을 오래된 목조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화려한 다포계와 혼동하기 쉽다. ③은 수덕사 대웅전의 지역성과 사찰 전통에 시선을 빼앗기면 정작 주심포인지 다포인지의 핵심 분류를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으면 주심포, 기둥 사이에도 있으면 다포로 가른다. 그다음 대표 건물을 볼 때는 건물 이름만 외우지 말고 주심포·다포 여부와 맞배지붕·팔작지붕 여부를 함께 묶어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주심포는 고려의 간결함, 다포는 조선의 화려함으로 기억한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이지만 팔작지붕이고, 성불사 응진전은 다포계 맞배지붕이다.

NoteBase

문 18.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버지가 말하기를 "십 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네 아들이 아니니 힘써 공부하라"라고 하였다. 그는 당에서 스승을 좇아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건부(乾符) 원년 갑오에 예부시랑 배찬이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선주(宣州)의 율수현위에 임명되었다.
— 『삼국사기』 —

① 역사서인 『제왕연대력』을 저술하였다.
② 난랑비 서문에서 삼교 회통의 사상을 보여주었다.
③ 『법장화상전』에서 화엄종 승려의 전기를 적었다.
④ 사산비명의 하나인 고선사 서당화상비문을 지었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당에 유학해 빈공과에 급제한 최치원의 생애와 저술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인물 매칭 문제이다.

핵심 정리

최치원은 신라 하대의 6두품 출신 문장가이자 유학자이다.
당에서 빈공과에 급제하였고, 귀국 뒤에는 개혁안을 올리며 활동하였다.
저술로는 『제왕연대력』, 『계원필경』, 『법장화상전』이 있고, 글로는 난랑비 서문과 사산비명이 대표적이다.
난랑비 서문에서는 풍류도를 통해 유교·불교·도교를 아우르는 삼교 회통의 인식을 보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최치원은 역사서인 『제왕연대력』을 저술하였다. 중국과 신라 왕실의 계통과 역사를 정리한 책으로 알려져 있다.
② O
난랑비 서문은 최치원의 글이다. 여기서 풍류도를 설명하며 유교·불교·도교를 아우르는 삼교 회통 사상을 드러냈다.
③ O
『법장화상전』은 최치원이 지은 고승 전기이다. 화엄종의 승려 법장의 생애와 사상을 서술한 글이므로 선지 내용이 맞다.
④ X
틀린 부분은 '사산비명의 하나인 고선사 서당화상비문'이라는 연결이다. 고선사 서당화상비는 원효의 행적을 적은 비로, 최치원의 사산비명에 속하지 않는다. 최치원의 사산비명은 진감선사탑비명, 낭혜화상비명, 대숭복사비명, 지증대사적조탑비명 등이다.

오답 포인트

최치원은 불교 관련 비문과 전기를 많이 남겨 승려 관련 유산과 쉽게 연결되지만, 모든 불교 비문을 최치원의 작품으로 보면 오답이 된다. ④는 원효 관련 고선사 서당화상비와 최치원의 사산비명을 섞어 놓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 문제에서는 먼저 제시문으로 인물을 특정한 뒤, 대표 저술과 대표 비문을 묶어서 판단한다. 최치원은 당 유학, 빈공과 급제, 난랑비 서문, 『제왕연대력』, 『법장화상전』, 사산비명으로 연결하면 선지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최치원 = 당 빈공과 급제 + 난랑비 서문 + 『제왕연대력』 + 『법장화상전』 + 사산비명이다.

NoteBase

문 19.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경제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10년대 -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한 회사령을 공포하였다.

② 1920년대 - 미국 증산을 표방한 산미증식계획을 수립하였다.

③ 1930년대 - 농공은행을 통합하여 조선식산은행을 설립하였다.

④ 1940년대 - 전체 농민까지 식량 공출을 강제한 식량관리령을 제정하였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1910년대·1920년대·1930년대·1940년대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경제정책을 시기와 정책명으로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1910년대는 회사령과 토지 조사 사업처럼 식민지 지배 기반을 만들고 한국인의 경제 활동을 통제한 시기이다.
1920년대는 산미증식계획처럼 일본의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의 쌀 생산과 반출을 늘린 시기이다.
1930년대는 병참기지화 정책 아래 농촌진흥운동, 남면북양 정책 등 전시 동원형 경제정책이 강화된 시기이다.
1940년대는 식량관리령과 공출처럼 전쟁 수행을 위해 식량과 노동력을 강제로 수탈한 시기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1910년대 회사령은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묶어 한국인의 기업 활동을 억제한 정책이므로 시대와 내용의 연결이 맞다.
② O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은 미곡 증산을 내세워 조선의 쌀 생산량을 늘리고 그 쌀을 일본으로 반출하려 한 정책이므로 맞다.
③ X
틀린 부분은 "1930년대"이다. 조선식산은행은 1918년에 여러 농공은행을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올바르게는 "1910년대에 농공은행을 통합하여 조선식산은행을 설립하였다"이다.
④ O
1940년대 식량관리령은 전시 동원 체제에서 일반 농민까지 식량 공출 체제에 편입해 미곡을 강제로 수집한 제도이므로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조선식산은행이라는 기관명만 기억하고 설립 시기를 1930년대 병참기지화 시기와 섞으면 ③에 끌리기 쉽다. 이 문항은 정책 내용보다도 정책이 실시된 시기를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를 노린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식민지 경제정책 문제는 먼저 시대를 1910년대 통제와 기반 장악,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 1930년대 병참기지화, 1940년대 공출 강화로 나눈 뒤 선지의 정책명이 어느 시기에 속하는지 대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회사령은 1910년대, 산미증식계획은 1920년대, 병참기지화는 1930년대, 식량 공출은 1940년대이다.

NoteBase

문 20. 밑줄 친 '이것'이 수행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당면한 한반도 문제를 심의하는 데 선거로 뽑힌 한반도 국민의 대표가 참여할 것을 결의한다. … (중략) … 참여할 한반도 대표가 한반도의 군정 당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가 아니라 한반도 주민에 의하여 정당히 선거된 자임을 감시하기 위하여 조속히 이것을 설치하여 한반도에 보내고자 한다. 그리고 이것에 한반도 전체에서 여행, 감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결의한다.

① 소련의 방해로 남한지역에서만 총선거를 감시하였다.

②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유엔군 파견을 결정하였다.

③ 한국 경제의 재건과 복구를 지원하였다.

④ 남한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역할을, 유엔군 파견·전후 복구 지원·대한민국 정부 승인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은 1947년 유엔 총회 결의로 한반도 총선거를 감시하려고 설치된 기구이다. 유엔군은 6·25 전쟁 대응 기구이고, 국제연합한국재건단은 전후 복구 지원 기구이며, 대한민국 정부 승인 문제는 유엔 총회 결의와 연결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은 한반도 전역의 선거를 감시하려고 했지만 소련의 방해로 북에서는 활동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1948년 5·10 총선거를 남한 지역에서만 감시하였다는 내용은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유엔군 파견을 결정"이다. 실제로는 6·25 전쟁 때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북한의 남침을 규탄하고 회원국의 군사 지원과 유엔군 구성을 추진하였다. 이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활동이 아니다.

③ X
틀린 부분은 "한국 경제의 재건과 복구를 지원"이다. 실제로는 전후 복구 지원은 국제연합한국재건단이 담당하였다.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은 선거 감시와 선거 실시 가능성 조사에 관한 임무를 맡았다.

④ X
틀린 부분은 "남한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이다. 실제로는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 정부를 위원단이 감시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 수립된 합법 정부로 인정하였다. 이것은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직접 수행한 활동이 아니라 위원단의 감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유엔 총회의 결의와 관련된다.

오답 포인트

한반도 문제에 관여한 유엔 관련 기구를 모두 같은 역할로 묶으면 틀리기 쉽다. 선거 감시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전쟁 대응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와 유엔군, 전후 복구는 국제연합한국재건단으로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총선거 감시가 나오면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으로 연결하고, 남침 규탄·유엔군 파견이 나오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재건·복구가 나오면 국제연합한국재건단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은 5·10 총선거 감시, 유엔군은 6·25 대응, 국제연합한국재건단은 전후 복구이다.

NoteBase